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8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성령강림절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4. 건강: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성경통독: 제10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23일)**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기도. 7/17(수) 8시 Zoom 기도회(골로새서)
7. 감사: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 해주신 유동윤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 감사: 점심은 유혜영 권사님께서, 강단미화는 유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심.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봉헌 (\$ 2,131.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진원 유금자, 오근희,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감 사: 김민택 김윤정,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오근희,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김민택 김윤정,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혹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5. 과테말라 (이누가) 병원 치료사역 및 현지인 전도

제16권 28호 2024년 7월 14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금자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1:12-14 다 같이
- 설 교 Sermon 전혀 기도예 힘쓰니라 유동윤선교사
- 봉헌송 Hymn 364장 내 기도하는 시간(1,4절)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유금자 권사	조병우 목사	유혜영 권사	조민연 권사
다음주	조민연 권사	박종님 전도사	송순란 집사	박종님 전도사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억눌려 고생하고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출2:25).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지시하시면서, 다시한 번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3:8)으로 풀어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로 다가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근심들을 그분께 아뢰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닐지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The Israelites brought their need for deliverance to God. They were suffering under the burden of Egyptian slavery and cried out for help. He heard them and remembered His promise: “God looked on the Israelites and was concerned about them” (Exo.2:25). He instructed Moses to bring liberty to His people and declared that He would once again release them “into a good and spaciou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3:8). Our King loves it when we come to Him! The King of heaven knows all of our needs and sov-ereignly works out His plans in our lives. As He does, however, He longs for us to come to Him – sharing our needs and other concerns – as part of our loving relation-ship with Him. He wisely provides what we need, not necessarily what we want.